

지켜야 할 틀은

지키고

버려야 할 틀은 버릴 터

〈출판저널〉이 새해를 맞는 느낌은 남다르다. 지난 해 2월, 재창간호를 내보낼 때의 심정은 설렘과 두려움이었다. 틀을 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고, 그만큼 많은 비판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용기와 비판받을 각오에 기대어 틀을 깬 후 열한 번째 〈출판저널〉을 내보내면서 새해를 맞는 느낌 역시 설렘과 두려움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재창간호를 낼 때보다 설렘은 크고, 두려움은 적다. 〈출판저널〉이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을 만큼 완벽한 출판전문지라고 할 수는 없을지언정 어떤 비판도 겸허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안과 밖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판단해서다. 이 지점까지 오도록 출판문화계와 독자들의 사랑이 가장 큰 힘이 됐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신년을 맞아 2003년의 〈출판저널〉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지면을 일부 개편했다. 콘텐츠의 갈래를 '특집', '사람이 좋다', '책이 좋다',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책의 광장', '해외출판 정보광장', '포커스' 등 7개 분야로 좁히고, 그 안에서 책과 사람이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개편의 주요 방향이다. 또한 이들 각각의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저자와의 만남, 출판사 탐방, 전문가가 본 이 책 등의 페이지를 늘려 독자 앞으로 다가간다.

장석주 이명량 이인식 유경 씨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독특한 사유를 토대로 써나가는 독서 일기 형식의 리뷰 지면을 마련했다. 이들 네 분이 기꺼이 독서 일기 연재를 맡아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독자들 역시 즐거운 책 읽기 시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출판저널〉 기자들의 리뷰 기사 역시 지난해와 다른 형태를 취해 독자 여러분께 다가간다. 이미 외부 인사의 참여를 배제한 채 〈출판저널〉 기자들만의 시각으로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선정 작업을 시도해 잔잔한 화제를 일으켰고, 2003년 '올해의 책, 올해의 저자'로 《남자의 탄생》의 전인권 씨를 '탄생' 시킨 데 힘입어 기자들에게 보다 주관적인 기사를 쓰도록 하는 것이 기자 리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출판저널〉 기자만의 시각이 투영된 다양한 형태의 리뷰 기사에 독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

해외출판산책 지면에는 단국대 고혜선 교수가 중남미 출판문화계 소식을 심층적으로 소개해 주기 위해 새로 참여했다. 송병선 교수와 함께 중남미 문학의 전문가로 꼽히는 고 교수의 순도 높은 이야기와 더불어 중견 한문 학자로서 한문학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학자로 평가받는 기태완 교수의 한시 이야기에든 여전한 관심이 쏟아지기를 희망한다.

신년호 특집은 새해를 맞는 모든 분들이 너나없이 골똘하고 있을 자기계발과 자기계발서들의 세계로 정했다. 자기계발서 출판이 활발한 시기는 사실 행복한 시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계발이 필요한 시대에 자기계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낙오'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이런 점에서 〈출판저널〉 독자 여러분께 자기계발서 특집을 새해 선물로 드리며 바쁜 연말에 귀한 원고를 보내주시길 필자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출발 2004, 더욱 새롭게 걸어가는 〈출판저널〉의 행보를 계속 지켜봐 주시길 빈다. 우리는 깨야 할 틀을 깨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지켜야 할 틀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